

## 숲으로 뒤덮인 광산

이와미 은광이 1923년 폐쇄되면서 폐광되었습니다. 광산이 펼쳐져 있던 산과 계곡은 거의 모두 자연적으로 매립되었습니다. 광산의 중심이었던 센노산의 대부분은 현재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수백 개의 채굴 터널과 갱도 중 상당수는 볼 수 없습니다.

20세기에 심은 삼나무와 섞여 소나무(적송), 가시나무, 졸참나무, 종가시나무 등 토종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숲이 점차 자연 상태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이 빠르고 강건한 대나무가 대부분 주변 나무에 가려져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숲 속 마을 터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습하고 온화한 기후가 옛 광산 주변 식생의 비교적 빠른 회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센노산 주변에 자생하는 토종 나무가 번성하는 것은 광산 운영 당시의 산림 관리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옥의 난방과 제련 시설의 연료로 대량의 장작과 숯이 필요했지만, 이와미은광 관리자는 산사태를 막기 위해 광산 구역 내에서 숯 생산을 위한 벌채를 금지했습니다. 대신 인근 마을 주변의 산림에서 나무를 조달했고, 그곳에서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벌채를 규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광산 중심부 주변에는 그 지역 고유의 나무들이 살아남았고, 폐광 이후 지역 생태계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